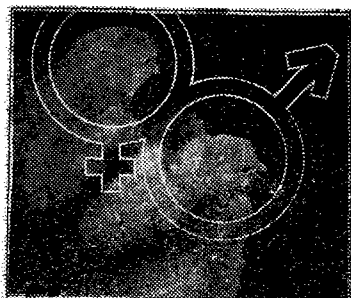


# 초생추 감별에 대한 考察

윤 경 중  
<서울부화장대표>



## ◎ 제 1 회 감별의 역사와 전망

## ● 제 2 회 감별의 기술

필자가 과거에 감별 연습을 할 때에 느꼈던 점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까 하여 몇 가지 적어 본다.

연습을 하려면 왜 그런지 잘되지 않고 흥문을 개장하려고 손을 대면 병아리 똥물만 나오고 똥물이 그치면 직장(直腸)이 튀어나와서 돌기를 볼 수 없게 되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흥문 개장도 잘되고 똥물이 나오지 않고 돌기를 정확히 볼 수 있을까 하고 궁급해 하던 차 선배들의 가르침과 일본의 마에다 이찌로(前田一郎)씨가 저술한 감별독본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했던 바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 1. 감별 연습의 요령

초생추 자웅감별의 연습은 첫째 기초적인 지식을 충분히 안 후에 실제 감별에 임해야 한다.

병아리 잡는 법, 똥을 짜내는 방법, 보정법(保定法), 흥문 개장법, 생식돌기 형태의 개념 및 보는 방법, 생각하는 법 등을 연구하여 점차 실제에 옮겨 손에 익게됨에 따라서 이를 신속히 취급할 수 있게 연습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최초에는 여간해서 똥도 마음대로 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면 그 압박 때문에 장부(腸部)에 상해를 일으키고 또 보정에 있어서도 흥문 개장을 할 때는 무의식 중에 손가락에 힘을 주어 병아리 목을 짊어 눌러서 고통을 주며 심하면 그 압박 때문에 병아리를 폐사시키는 일까지도 초심자에게는 있는 일이다.

흥문 개장이란 꽤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기

술인고로 서두르지 말고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처음의 연습은 응추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병아리를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도 싸므로 돌기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병아리의 보정과 흥문 개장만을 연습하고 그것이 마음대로 될 때까지는 내부의 관찰을 피하고 기술이 연마됨에 따라서 처음에는 응추돌기를 충분히 연구하여야 한다. 응추의 돌기도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 무감별 연습을 하는 따위는 결국 의문만을 남길 뿐 오히려 목표 달성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2. 보정 및 흥문의 개장

보정 및 흥문의 개장 조작은 초생추 자웅감별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흥문만 제대로 개장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생식돌기가 나타나 육안으로 용이하게 돌기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연습에는 어떻게 하면 빨리할 수 있으며 흥문 개장에는 어떻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개장이 빨리 잘되어서 생식돌기를 볼 수 있을까 항상 각자의 동작과 힘을 주는데의 가감, 끼어 잡는 곳 등 제반 요령에 주의하여 생식돌기의 노출에 완전 신속하게 할 수 있나에 여념없이 흥문의 개장연습을 해야 한다.

초심자가 잘못 감별하는 원인은 거의 흥문개장의 불완전에서 오는 것이어서 흥문개장에 특히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좀더 나가서는 개장을 끝낸 다음의 관찰 뿐만 아니라, 개장 조작 중 환전(換傳)되어 가는 직전의 관찰이다. 그 순간의 관찰은 감별 기술상 배우는 견지에서 가

장 증대한 한 순간으로 이때 주위벽(생식돌기부)의 자용에 의하여 형성하고 있는 상태의 차이를 관찰하여 완전히 개장하기 전에 이미 자용을 결정하여 버리도록 연구하여야 한다.

### 3. 감별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 (1) 채광과 감별실

적당한 광선의 유무는 눈의 피로와 감별 능력을 지배하는 것이다. 광선의 부족은 눈을 피로 시키며, 관찰에 곤란이 빨리 오고 감별 능력 및 정확율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감별상 적당한 채광은 절대 필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감별은 태양광선에 의한 것과 전등광선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태양광선과 전등광선 중 어떤 것에 감별을 하든 그 광선을 받는 적부(適否) 및 변화가 적어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소 선정에 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요점을 말하면

##### (가) 태양광선으로 행하는 경우

태양광선에 의하여 감별을 하는 경우는 직사광선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직사광선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눈의 피로가 크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구름에 의한 어둠도 아닌 직사광선을 일단 차단시킨 저광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는 대개가 동남간의 직광이 들어올 수 있는 창가에서 하는 것으로 별로 많지는 않으나 전등이 없는 곳에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 (나) 전등광선으로 행하는 경우

일기의 구애를 받지 않고 또한 주야간의 구별 없이 감별실만 되어 있으면 된다. 다만 전등광으로 행하는 경우는 전등에 대한 축광이 맞아야 한다. 이것은 눈의 시력에 약한 차이는 있으나 보통 100W~200W가 가장 적절한 축광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서도 전등의 축광을 직접 받으면 눈의 피로는 물론 강한 투광으로서 돌기의 구분이 잘 안 되는고로 가끔적이면 얇은 미농지 같은 것으로 일단 차단시켜서 적절광선이 반사되어야 감별의 정확율이 높다. 또한 눈의 피로를 막기 위한 것과 장시간의 감별에는 장애가 될 수 있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채광을 검정 커

텐으로 막아야 한다.

#### (ㄷ) 감별실

감별실은 보온과 환기를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를 감별할 때에는 적당한 입의 장소를 마련하면 되나, 많은 양의 감별을 할 때에는 작업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전용 감별실이 필요하다.

여름철에는 따스한 관계로 좋으나,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병아리의 건강상태를 보아 온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될 줄로 보며 환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외부에 대한 잡음이 들지 않도록 조용한 곳을 택하는 것도 감별의 성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2) 상자의 위치

감별하여 자용을 결정했으면 병아리를 섞이지 않도록 정해진 상자에 집어 넣지 않으면 안 된다. 힘써 감별한 병아리를 간혹 상자에 잘못 넣어 생각지도 않은 실패를 초래할 때가 있다.

항상 일정한 위치에다 상자를 놓아 잘못 집어 넣는 일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여야 한다. 상자의 위치는 각자 편리한 곳에 놓으면 좋으나 필자는 우측에다 우추, 좌측에다 자추를 넣는다. 이는 자추에 대하여 손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별 작업상 우측보다는 좌측 손이 압전히 병아리를 다루게 되는 탓으로 당연하다고 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항상 상자 위치는 일정하게 두어 자용상자의 배치를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무의식 중에도 좌측은 자추, 우측은 우추를 넣게 되며 병아리를 잘못 넣어줌으로서 생기는 오차는 생기지 않는다.

#### (3) 자세

감별을 하는 때는 절대 건강한 체력과 인내, 세밀한 관찰력과 끈기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것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당연히 자세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꾸부리고 앉았 가슴에 압박을 가져오거나 또는 고의로 자세를 만들려고 애쓰다가는 지쳐버리는 등의 일을 피해야

한다. 작용되는 팔은 항상 유부의 위치와 동일하게 하며 이에 대한 자세는 보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 (4) 의문 돌기의 처치

실제 감별에 있어 이상하게 생긴 생식돌기가 부딪쳤을 경우 관찰한 형태가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 관정이 다르다.

이러한 일은 기술의 숙련에 따라 말할 여지가 없다. 기술이 숙련된 자라도 간혹 전등의 광선 차이, 눈의 피로, 체력에 대한 이상 등의 결과로 생기는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몇번이고 홍문층혈이 되어 주위벽이 검정빛이 나게 되며 정확한 결정을 즉시 하려고 되풀이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피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장의 횡수를 되풀이 하면 할수록 주위벽은 노장하여 변화를 일으키며 내부의 손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원형을 보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면 정확히 관찰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하여 막상 판단은 내렸다 해도 원형 즉 최초에 관찰하려던 형태가 아니고 변형된 것으로 정확성은 긍정할 수 없고 본연의 형태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게 되어 오감을 할 수 있으며 그의 관습을 갖게 되면 파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 이에 심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의문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는 다행히 선택이 있어 질문할 수 있으면 이 이상 좋은 일이 없으나 질문할 선택이 없을 때에는 하는 수 없이 큰 손상을 가져오기 전에 관찰을 중지하고 놓아서 쉬게 만든 후 시간이 조금 경과한 다음에 다시 검사하거나 또는 해부하여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4. 감별사로서 필요한 사항

#### (1) 시 력

시력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 좋다. 직업 감별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양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본다는 것과 보는 힘이 영속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숙련된 감별사는 힘들이지 않고 끝낼 수 있으나, 초심자는 고생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는 일일이 마리마다 관찰하여 대다수를 해야 하는 고로 눈에 심한 피로가 오게 된다. 직업 감별사로서 일을 계속하려면 연일 진지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이러한 것에 이겨 나갈 수 있는 좋은 시력의 소유자만이 직업 감별사로서의 시력에 합격된 사람이다. 그러나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 정도의 시력이면 지장은 없는 것이다.

#### (2) 손가락

관찰에 있어서 시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었지만 실은 손끝(손가락) 조작이 또한 전부이기도 하다. 손가락의 조작이 안 된다는 것은 홍문의 개장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홍문 관찰에 의하여 감별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에 있어서의 조건은

(1) 손가락이 모두 있어야 한다.

(2) 각 손가락에 지장이 없고 동작이 민활하여야 할 것.

(3) 손가락이 예민해야 할 것.

등이 선결 문제이고 특히 조작하는 손가락은 절대적이다. 여기서 참고로 말해줄 것은 손가락은 가늘어야 좋고 부드러운 것이 좋다는 것이다.

#### (3) 체 력

감별이란 전술한 바 눈과 손가락의 일이지만 동시에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아침부터 앓은채로 세밀한 작업을 끊기있게 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감별사를 볼 때 앉아서 무겁지 않은 병아리를 다루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불지는 모르나, 그처럼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제일 먼저 허리가 아프고 장시간 병아리 홍문을 보면 눈도 흐려지고 자연히 두뇌에는 피로가 오므로 작업능율을 상실한다. 이리하여 체력이 약하면 오감이 생기는고로 가급적이면 강건한 체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4) 정신적인 방향에 대하여

감별을 하려는 사람의 정신적인 방향과 소질

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또한 결단력과 책임감이 강하고 진실한 태도로 작업에는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 중 잠비에 사로잡히지 말고 정신을 통일시켜야 한다.

이에 호응하여 감별실은 조용하고 안정된 장소를 선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정신의 피로를 덜으므로 감별의 오차를 없애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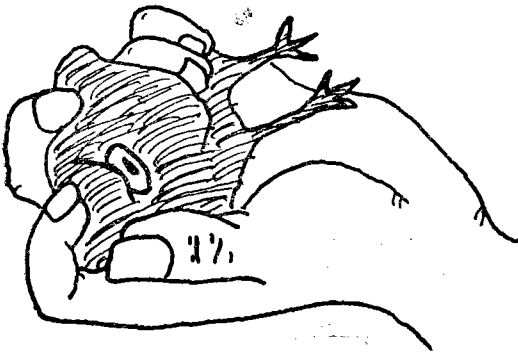
### 5. 감별법의 조작

병아리를 잡는 식부터 홍문 개장법에 이르기까지 그 조작법이 일정한 방식은 없고 개개인인 연구하여 일정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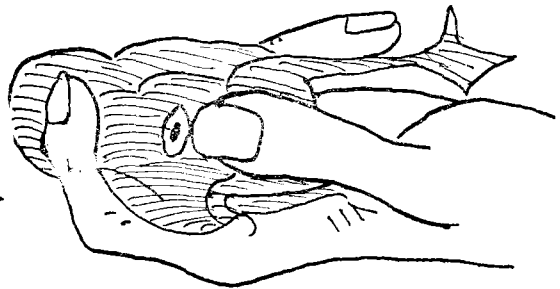
이와 같이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조작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필자가 말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결과는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목적에는 차가 없는 것이니까 각자의 연습에 의하여 그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식에 관해서는 기술을 생략하고 필자가 하는 조작법을 기술하고자

<제 1도> 장지(3지) 배분법과 헛지(2지)배분법

① 장지 배분법



② 헛지 배분법



#### (2) 배분시키는 법

왼손에 병아리가 옮겨지면 우수는 다음의 준비로서 병아리를 다시 잡으며 왼손에 있는 병아리는 헛지(2지) 또는 장지(3지)로서 가볍게 홍문에 가까운 복부를 압박으로(압력) 배분시킨다.

한다.

#### (1) 병아리 잡는 법

감별조작은 병아리를 상자에서 잡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병아리를 잡는 것이 잘못되면 보정하는데 불편을 느껴 다시 바꾸어 쥐지 않으면 안 된다. 두빈 손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만큼 감별동작에 신속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병아리의 방향 등을 참작하여 잡아내도록 한다.

#### (2) 병아리를 잡아내는 방법

병아리를 상자에서 잡아내어 보정하는 방법은 좌수(左手)로서 직접 잡는 방법과 일단 우수로 잡아서 좌수로 옮기는 방법이 있다. 어느쪽이나 각자 습성에 따라 다르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경우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잡는 방법은 좌수 장치와 무명지 사이를 벌린 다음 병아리 머리가 아래(손등)로 들어 가도록 하면 된다. 다만 병아리는 붙잡기 좋은 위치에 있는 것보다 잡는 요령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배분에는 헛지 배분과 장지 배분이 있다. 이것은 설명보다는 그림을 보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것으로 본다.

가급적이면 국소가 아닌 곳을 강하지 않게 압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부가 상하며 심하면 난황이 터져서 죽는 수까지 있게 된다.